

# 학술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유관순정신과 잔다르크정신의 비교 이해

##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the Spirit of Yu Gwan-sun and Joan of Arc Based on Academic Big Data Analysis

배 정 호\*

Jungho Bae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관순정신과 잔다르크정신에 대한 학문적·사회적 이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교하여, 글로벌 시민교육 시대에 필요한 저항정신의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에서 유관순 관련 532편, 잔다르크 관련 843편의 학술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키워드 빈도분석, 워드클라우드, 관계망 분석(SNA), 시계열 비교를 하였다. 그 결과, 유관순정신은 ‘movement’를 중심으로 3개 군집이 응집된 구조를 보인 반면, 잔다르크정신은 ‘life’와 ‘history’의 두 해석축을 중심으로 3개 군집이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두 인물의 공유 네트워크에서는 ‘movement’, ‘independence’, ‘national’, ‘japanese’, ‘march’, ‘history’가 공통 허브로 나타났다. 2020년 양자 100주년을 전후한 시계열 비교에서는 유관순정신은 4개 군집에서 2개 군집으로 축소되었고, 잔다르크정신은 4개 군집에서 6개 군집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http://doi.org/10.56475/ygsr.2026.31.1.125>

논문투고일 : 2026.04.27. 논문심사일 : 2026.05.19. 게재확정일 : 2026.06.05.

\* 문학박사,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luckyguy@bsc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Baeksoek Culture University

이는 두 인물의 정신이 저항과 독립이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수렴하면서도, 각기 다른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상이하게 재해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연구는 저항정신의 재개념화를 통해 기독교적 소명 의식, 자아실현, 글로벌 시민교육의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학술빅데이터, 유관순정신, 잔다르크정신, 인성교육, 글로벌 시민교육

목 차

|           |             |
|-----------|-------------|
| I. 들어가며   | III. 연구 결과  |
| II. 연구 방법 | IV. 논의 및 결론 |

I. 들어가며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내어놓겠느냐(누가복음 9: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목숨을 건 저항(resistance)은 인간 행위의 극단에 위치한다. 그것은 개인의 생존 본능을 넘어서는 가치 지향의 발현이며,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자유와 공동체를 위해 던지는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의 극적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유관순(柳寬順, 1902-1920)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이끌고 순국한 것과, 잔다르크(Jeanne d'Arc, 1412-1431)가 프랑스의 해방을 위해 전장에 나서고 화형에 처해진 것은, 시대와 문명의 경계를 초월하여 인간 정신의 보편적 숭고함을 드러낸다.

두 인물의 저항은 세속적 영웅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유관순은 이화학당(梨花學堂)에서의 기독교 교육을 통해 인간 존엄과 자유에 대한 신앙적 확신을 내면화하였으며(이응규, 2025), 잔다르크 또한 기독교적 소명(vocation)과 경험이 행위의 근원이었다. 유관순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중 만세를 외치며 순국한 것과, 잔다르크가 화형대 위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숨을 거둔 것은, 신앙에 기반한 자아실현이 역사적 실천으로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인물의 저항정신은 소명 의식(sense of calling)과 자아실현의 교차점에 위치하며, 이는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진정한 나’와의 만남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점의 전환으로,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각각 독립된 국가 서사로 다루어 온 기존 접근을 넘어, 두 인물의 ‘정신(spirit)’을 동일 학술빅데이터 분석 틀로 비교 이해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둘째, 연구 방법의 참신성으로,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국내외 학위·학술논문을 모두 수집**하여 동일 파이프라인(빈도→워드클라우드→관계망 분석→시계열 비교 분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다. 셋째, 유관순 순국 100주기와 잔다르크 시성(聖人) 100주년, 양자 100주년의 의미 있는 2020년의 시간성을 기점으로 시계열 관계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다국어(한국어·영어·프랑스어 일부)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국내연구와 해외연구의 언어를 통합 분석하였다. 다만 프랑스어 기능어와 제목어가 일부 잔존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서는 중심 키워드와 군집 맥락을 함께 검토하였다. 다섯째, 기독교 철학 및 교육학적으로, 글로벌 시민교육 시대에 ‘저항정신’이 특정 국가 영웅 서사를 넘어 보편적 인성·시민성 덕목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교육적 기초를 제공한다.

## 2. 유관순 · 잔다르크 연구의 학술적 동향

유관순에 관한 국내 학술 연구는 주로 역사학 · 독립운동사의 맥락에서 수행되어 왔다. 나달숙(2010)은 유관순의 저항과 재판을 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였고, 이은영(2022)은 영화 <1919 유관순>과 <항거: 유관순 이야기>를 통해 영상매체에 재현된 유관순 열사의 형상을 분석하였다. 이웅규(2025)는 성경적 관점에서 본 유관순 열사의 평화정신을 연구하여, 유관순의 행위가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둔 것임을 논증하였다. 박종선 · 박창원(2025)은 ‘유관순학’ 강좌를 통한 역사적 위치와 사상적 계승을 논의하며, 유관순 연구가 단순한 역사 서술을 넘어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잔다르크에 관한 국내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주로 영화 · 문학 · 여성사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두 인물의 직접적 비교는 진경년(2009)의 생애사적 비교 연구와 박정원(2022)의 영상매체 비교 연구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학술 담론의 구조적 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관순을 ‘한국의 잔다르크’로 호명하는 수사가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이 비유적 병치(juxtaposition)가 학술적 분석의 대상이 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Nietzsche는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하는 보편적 도덕 체계가 있다면, 그것은 개별 인간의 고유한 존재 발현을 억압하는 발상이라고 하였다(이병래, 2017). 인성(人性)은 인간의 본성으로 사람이 타고난 다른 존재들과 구분할 수 있는 고유성을 의미하며 사람마다 다르다

(배정호 · 범은애, 2018b).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진정한 나와의 만남의 기회를 마주하고, 그 만남의 시간을 지속시키는 자아실현 교육이어야 한다(배정호 · 범은애, 2018b; 권기환, 2016; 김수진, 2014; 심상보, 2006). 빅데이터 활용은 웹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통찰(Insight)을 통해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는 방안이다(배정호 · 범은애, 2018a). 기존의 3V(Volume · Velocity · Variety) 분석에서 통찰을 통한 새로운 가치(Value) 창출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V4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Beyer & Laney, 2012; 배정호 · 범은애, 2019).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점의 전환으로,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각각 독립된 국가 서사로 다루어 온 기존 접근을 넘어, 두 인물의 ‘정신(spirit)’을 동일 학술빅데이터 분석 틀로 비교 이해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둘째, 연구 방법의 참신성으로, RISS에서 국내외 학위 · 학술논문을 전수 수집하여 동일 파이프라인(빈도→워드클라우드→관계망 분석→시계열 비교 분석)으로 비교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설계하였다. 셋째, 유관순 순국 100주기와 잔다르크 시성(聖人) 100주년, 양자 100주년의 의미 있는 2020년의 시간성을 기점으로 시계열 관계망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다중언어(한국어 · 영어 · 프랑스어)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국내연구와 해외 연구의 언어를 통합 분석하였다. 다중언어 처리는 R의 형태소 분석에서 한국어와 영어, 프랑스어 명사를 각각 추출한 뒤, 동일 공출현 매트릭스에서 통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다섯째, 기독교 철학 및 교육학적으로, 글로벌 시민교육 시대에 ‘저항정신’이 특정 국가 영웅 서사를 넘어 보편적 인성 · 시민성 덕목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교육적 기초를 제공한다.

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유관순정신과 잔다르크정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학술적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학술 연구 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수집되는 학술 텍스트 자료를 학술빅데이터로 정의하고 수집하였다. 유관순정신 관련 자료는 ‘유관순’, ‘유관순정신’, ‘유관순 열사’, ‘Yu Gwan-sun’ 등의 주제어로, 잔다르크정신 관련 자료는 ‘잔다르크’, ‘Joan of Arc’, ‘Jeanne d’Arc’, ‘잔다르크’ 등의 주제어로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Python을, 분석에는 R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자료수집 결과

| 구분                 | 항목         | 유관순정신                                       | 잔다르크정신                                      |
|--------------------|------------|---------------------------------------------|---------------------------------------------|
| 학술<br>연구<br>(RISS) | 수집 주제어     | 유관순, 유관순정신, 유관순 열사 등                        | 잔다르크, Joan of Arc, ‘Jeanne d’Arc’ 등         |
|                    | 수집 대상      | 국내외 학위·학술논문 전체 기간                           | 국내외 학위·학술논문 전체 기간                           |
|                    | 수집자료 유형    | 서명, 저자, 초록, 키워드, 발행처, 목차, 국문 요약, 영문초록, 인용 수 | 서명, 저자, 초록, 키워드, 발행처, 목차, 국문 요약, 영문초록, 인용 수 |
|                    | 수집/분석 건수   | 수집 532편/분석 267편                             | 수집 843편/ 분석 365편                            |
|                    | 자료수집 시기    | 2026.03.01.~2026.03.15                      |                                             |
|                    | 자료수집 대상 기간 | ~2026.02.28                                 |                                             |

2. 자료정제

수집된 데이터는 R의 형태소 분석 기법을 통해 문장을 최소 단위로 분류하고, 두 글자 이상의 명사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유관순’,

‘잔다르크’, ‘독립운동’, ‘만세운동’, ‘순국’, ‘화형’, ‘오를레앙’, ‘삼일운동’ 등은 전문용어(고유어)로 설정하여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의 단어 유실을 최소화하였다. 불용어 처리를 통해 관사·전치사·접속사 등의 기능어와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제거하였다. 중복자료 처리는 출처와 날짜가 동일한 자료는 삭제하되, 동일하지 않은 사이트에 스크랩된 자료는 의도적 인식 표현으로 보아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배정호 · 범은애, 2018a). 다국어 처리는 한국어 · 영어 · 프랑스어 명사를 중심으로 수행하되, 잔다르크 자료의 특성상 프랑스어 고유명 · 제목어가 일부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elle’, ‘son’과 같은 기능어와 ‘*cered*’처럼 의미가 불명확한 잔존 토큰은 중심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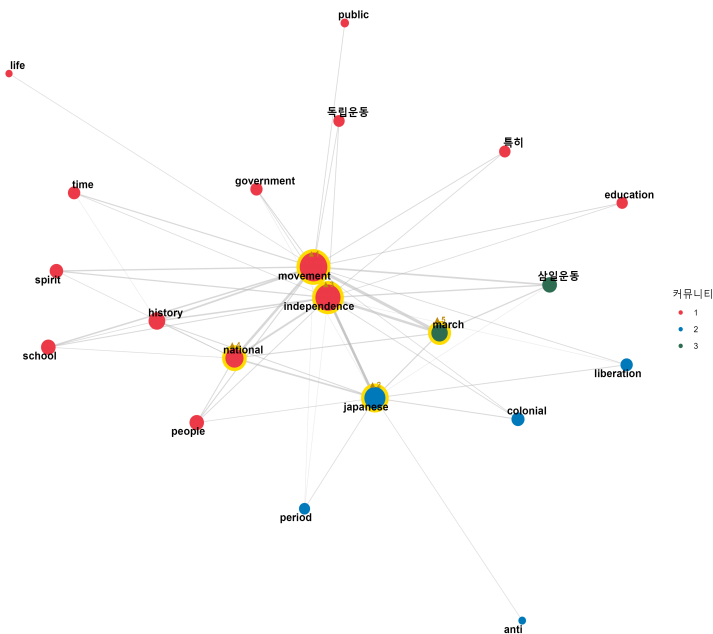
### 3. 자료 분석

분석은 유관순정신과 잔다르크정신 각각에 대해 동일한 자료정제 절차를 적용한 뒤 교차 비교하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첫째, 주제어 빈도분석 표를 제시하고 워드클라우드(word cloud)로 시각화하였다. 둘째, 주제어 간 의미관계망을 구성하고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페이지랭크(PageRank) 등의 중심성 지표를 분석하였으며, 커뮤니티 탐지(community detection)와 가교 단어(bridge word)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두 인물 연구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상위 50개 키워드의 교차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렴 · 발산 구조를 분석하였다. 넷째, 2020년 양자 100주년(유관순 순국 100주기 · 잔다르크 시성 100주년) 을 기점으로 전후 담론 변화의 시계열 네트워크 비교를 실시하였다.





신앙 사이의 연결이 학술 담론 수준에서도 주제어로 형성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다.



<그림 2> 유관순정신 학술 연구 관계망 분석

## 2) 관계망 분석(SNA)

유관순정신 학술 연구의 관계망 분석 결과는 <그림 2> 및 <표 2>와 같다. 관계망 분석을 통해 ‘movement’라는 가교 단어로 ‘independence’, ‘national’, ‘japanese’, ‘march’, ‘history’ 등 다양한 주제어와 연결되어 유관순정신에 관한 학술적 탐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movement’는 PageRank 0.20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으며, 연결중심성(degree=37)과 매개중심성(betweenness=139.5) 모두에서 최상위를 기록하여 가교 단어 1위로 나타났다. 이는 유관순정신이 ‘운동(movement)’

이라는 단일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술 담론이 강력하게 수렴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커뮤니티 분석 결과, 3개의 주요 군집이 식별되었다. 커뮤니티 1(빨간색)은 ‘movement’, ‘independence’, ‘history’, ‘national’ 등으로 구성된 독립운동·역사 군집이며, 커뮤니티 2(노란색)는 ‘Japanese’, ‘colonial’, ‘liberation’, ‘anti’ 등으로 구성된 식민·해방 군집, 커뮤니티 3(초록색)은 ‘삼일운동’, ‘march’ 등으로 구성된 3·1운동 특화 군집이다. 세 군집이 ‘movement’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응집적 구조를 보였다.

<표 2> 유관순정신 학술 연구 중심성 지표

| 연번 | 주제어          | Degree | Betweenness | PageRank | 문서수 | 커뮤니티 | 가교   |
|----|--------------|--------|-------------|----------|-----|------|------|
| 1  | movement     | 37     | 139.5       | 0.201    | 92  | 1    | ★ 1위 |
| 2  | independence | 32     | 3.5         | 0.161    | 84  | 1    | ★ 3위 |
| 3  | japanese     | 22     | 22.0        | 0.106    | 61  | 2    | ★ 2위 |
| 4  | national     | 16     | 0           | 0.074    | 51  | 1    | ★ 4위 |
| 5  | march        | 10     | 0           | 0.058    | 48  | 3    | ★ 5위 |
| 6  | history      | 11     | 0           | 0.049    | 50  | 1    |      |
| 7  | 삼일운동         | 7      | 0           | 0.036    | 44  | 3    |      |
| 8  | school       | 8      | 0           | 0.035    | 45  | 1    |      |
| 9  | spirit       | 6      | 0           | 0.029    | 39  | 1    |      |
| 10 | education    | 4      | 0           | 0.020    | 38  | 1    |      |

## 2. 잔다르크정신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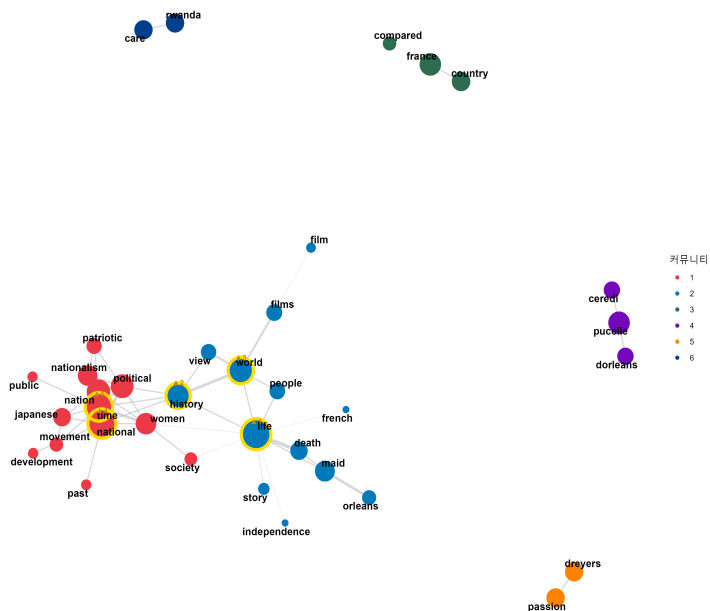
### 1) 학술 연구 키워드 워드클라우드

잔다르크정신 관련 학술 연구를 분석한 결과 다음 <그림 3>과 같다. 워드클라우드에서 ‘life’, ‘france’, ‘time’, ‘ceredi’, ‘national’, ‘maid’, ‘trial’, ‘war’, ‘pucelle’, ‘saint’, ‘history’, ‘death’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ceredi’는 의미가 불명확한 전처리 잔존 토큰으로 보아 중심 해석에서



에서는 'life'가 PageRank와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상위에 있고, 'history'는 문서수와 매개중심성이 높은 해석축으로 나타나 복수적인 해석 구조를 형성하였다.

커뮤니티 분석 결과, 유관순정신의 3개 군집에 비해 현저히 분산된 6개 군집이 식별되었다. 커뮤니티1(빨간색)은 'national', 'time', 'political', 'nationalism' 등으로 구성된 국가·정치 군집, 커뮤니티2(파란색)는 'life', 'maid', 'death', 'orleans' 등 생애·수난 군집, 커뮤니티3(초록색)은 'france', 'country' 등 프랑스·비교 군집, 커뮤니티4(보라색)는 'pucelle', 'dorleans' 등 프랑스어 고유명·제목어 중심의 군집, 커뮤니티5(주황색)는 'dreyers', 'passion' 등 영화·예술 군집, 커뮤니티6(남색)은 'rwanda', 'care' 등 인권·돌봄 확장 군집이다.



<그림 4> 잔다르크정신 학술 연구 관계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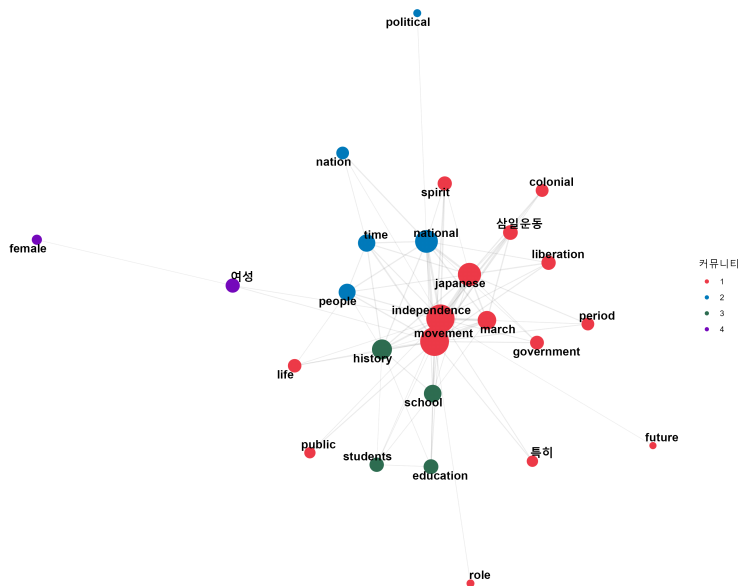
<표 3> 잔다르크정신 학술 연구 중심성 지표

| 연번 | 주제어       | Degree | Betweenness | PageRank | 문서수 | 커뮤니티 | 가교   |
|----|-----------|--------|-------------|----------|-----|------|------|
| 1  | life      | 16     | 137.0       | 0.074    | 20  | 2    | ★ 1위 |
| 2  | national  | 18     | 61.5        | 0.064    | 19  | 1    | ★ 4위 |
| 3  | time      | 18     | 61.0        | 0.060    | 19  | 1    | ★ 5위 |
| 4  | world     | 10     | 66.0        | 0.050    | 15  | 2    | ★ 3위 |
| 5  | history   | 12     | 97.0        | 0.044    | 23  | 2    | ★ 2위 |
| 6  | political | 14     | 20.5        | 0.046    | 14  | 1    |      |
| 7  | women     | 11     | 47.0        | 0.037    | 15  | 1    |      |
| 8  | maid      | 6      | 24.0        | 0.034    | 16  | 2    |      |
| 9  | passion   | 2      | 0           | 0.028    | 10  | 5    |      |
| 10 | death     | 4      | 0           | 0.025    | 14  | 2    |      |

### 3. 유관순정신과 잔다르크정신의 비교 이해

#### 1) 공유 키워드 교차 네트워크

두 인물 연구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상위 50개 키워드의 교차 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공유 네트워크에서 ‘movement’, ‘independence’, ‘national’, ‘japanese’, ‘march’, ‘history’가 공통 허브로 나타나, 두 인물의 정신이 ‘독립·저항·국가’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의 커뮤니티가 식별되었으며, ‘여성(female)’은 두 네트워크 모두에서 출현하였으나 주 네트워크에서 분리된 위치를 차지하여, 여성 담론이 저항정신의 핵심 담론에 아직 충분히 통합되지 못한 현상을 시사한다. ‘spirit (정신)’은 ‘national’과 ‘삼일운동’ 사이에 위치하여, 정신 담론이 국가 서사 및 구체적 역사 사건과의 연결 속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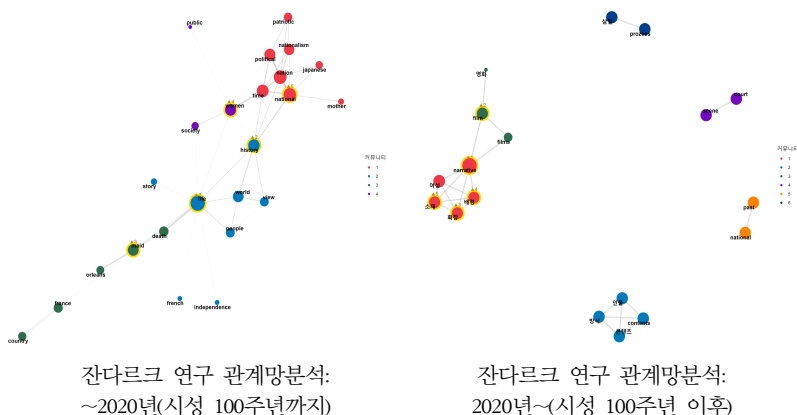


<그림 5> 공유 키워드 교차 관계망분석: 유관순 ∩ 잔다르크

## 2) 2020년(양자 100주년) 전후 시계열 비교

2020년 전후로 담론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유관순정신은~2020년 구간(4개 커뮤니티, 밀도 0.421)에서 2020년~구간(2개 커뮤니티, 밀도 0.346)으로 군집이 4개에서 2개로 축소되어 담론의 응집이 강화되었다. 다만 여기서의 ‘응집’은 밀도 상승이 아니라 군집 수 축소와 핵심축 집중을 기준으로 한 기술적 해석이며, 밀도는 오히려 0.421에서 0.346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2020년 순국 100주기를 거치며, 유관순정신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independence-movement-march’ 축으로 더욱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100주년 이후에는 ‘spirit’, ‘meaning’, ‘school’, ‘independence’ 등이 핵심 노드로 부상하여, 유관순정신의 교육적·의미론적 재해석이 활발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잔다르크정신은 ~2020년 구간(4개 커뮤니티, 밀도 0.290)에서 2020년~ 구간(6개 커뮤니티, 밀도 0.301)으로 군집이 4개에서 6개로 증가하여 담론의 분산양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2020년 이후 구간에서 ‘영화’, ‘film’, ‘films’, ‘narrative’, ‘여성’, ‘배경’ 등 문화콘텐츠 · 젠더 관련 키워드가 독립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court(재판)’, ‘scene’, ‘past’, ‘national’ 등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는 잔다르크 시성 100주년(1920-2020)을 계기로 잔다르크정신이 역사 · 정치 담론에서 문화 · 젠더 담론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2020년 이후 27편이라는 극소수의 논문만이 확인되어, 한국 학계에서의 잔다르크 연구의 절대적 희소성이 재확인되었다.



<그림 6> 2020년(양자 100주년) 전 · 후 관계망분석 시계열 비교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관순정신과 잔다르크정신의 비교

이해를 위해 RISS에서 유관순 관련 532편, 잔다르크 관련 843편의 학술 연구를 수집하고 정제 후 각각 267편과 365편을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인물에 대한 학술 담론의 발산점에 대한 논의이다. 유관순 정신은 ‘movement’라는 단일 허브(PageRank=0.201)를 중심으로 3개 군집이 응집된 구조를 보인 반면, 잔다르크정신은 ‘life’(PageRank=0.074, betweenness=137)와 ‘history’(문서수=23, betweenness=97)의 두 해석축의 두 해석축을 중심으로 6개 군집이 분산된 구조를 보였다. 유관순정신의 응집성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유관순이 ‘3·1운동의 상징’으로 강력하게 의미 고정되어 있음을 반영하며, 잔다르크정신의 분산성은 중세부터 현대까지 종교·정치·문화의 다양한 맥락에서 재해석되어 온 역사적 궤적을 반영한다. 이러한 동·서양의 생애사 탐구 관점의 구조적 차이는 인성 및 시민교육에서 하나의 덕목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실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두 인물에 대한 학술 담론의 수렴점에 대한 논의이다. 공유 키워드 교차 관계망분석에서 ‘movement’, ‘independence’, ‘national’, ‘japanese’, ‘march’, ‘history’가 공통 주제어로 나타나, 두 인물의 정신이 ‘독립·저항·국가’라는 보편적 가치에서 수렴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인성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실현이며(Maslow, 1943), 유관순과 잔다르크의 정신은 이러한 자아실현이 역사적 극한 상황에서 구현된 원형(archetype)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관순정신 워드클라우드에서 ‘christian’과 ‘기독교’ 키워드가 확인되었고, 잔다르크정신에서는 ‘passion(수난)’, ‘saint(성녀)’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는 두 인물의 저항이 기독교적 소명 의식(vocation)과 접속하는 지점이 학술 담론 수준에서도



주제어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선행 연구(이웅규, 2025)에서 논증된 유관순의 기독교적 정체성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빅데이터 키워드 분석에서 직접 도출된 인과적 결론이라기보다는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선행 연구와 교차하여 해석한 것임을 명시한다.

셋째, 데이터 비대칭과 시계열 변화에 대한 논의이다. 유관순 관련 학술 연구 532편에 비해 잔다르크 관련 843편이 수집되었으나, 잔다르크 데이터에는 다국어(프랑스어 · 영어) 논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정 지역(Jeanne d'Arc Basin)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있었다. 한국어 기반 순수 인문학 연구는 현저히 적었다. 2020년 시계열 비교에서 유관순 담론은 4개 군집에서 2개 군집으로 응집이 강화된 반면, 잔다르크 담론은 4개 군집에서 6개 군집으로 응집력이 느슨해지고 확산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각 구간의 문헌 수와 언어 이질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경향을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에서 해석하였다. 유관순정신의 응집 강화는 100주년을 계기로 'independence-movement' 축의 학술적 재확인이 이루어졌음을, 잔다르크정신의 분산 심화는 소수의 연구자가 각자의 관심(영화 · 젠더 · 내러티브 등)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교육적 제언이다. 유관순정신과 잔다르크정신의 수렴점은 글로벌 시민교육의 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유아기 보편타당한 불변의 도덕률에 대한 얇은 교육으로 시작하여, 가치가 상충하는 딜레마 상황에서의 덕목과 가치 이해, 자신의 소신을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적 실행, 마지막으로 자유에 기반한 자아실현의 영역으로 인성 교육은 연속적 확장과 축소의 순환 작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배정호 · 범은애, 2018b).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초·중등 사회과 및 도덕과 교과과정 내에 ‘저항정신의 세계사적 비교’ 단원을 개설하여,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비교 교재(comparative case study)로 활용할 수 있다. 두 인물의 공통점(독립·저항·국가)과 차이점(문화적 맥락)을 학생들이 직접 탐구하는 프로젝트 학습(PBL)은 글로벌 시민성 함양에 효과적인 교수법이 될 수 있다.

둘째, 대학 교양 교과목으로 ‘유관순 학’ 강좌(박종선·박창원, 2025)의 확산과 더불어, ‘저항정신의 비교문화론’ 또는 ‘글로벌 시민 교육과 역사적 영웅 서사’와 같은 융합 교과목을 개설하여, 유관순-잔다르크 비교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시민성 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아카이브와 학술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인문학 체험형 교육’을 설계할 수 있다. 학생들이 직접 RISS 등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유관순·잔다르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간단한 워드클라우드와 네트워크 시각화를 통해 두 인물에 대한 학술 담론의 구조를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수업 모형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와 역사 교육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 교수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시민교육 시대에 필요한 궁극적인 자유 이해의 한 방안으로 저항정신의 재개념화를 통해, 유관순정신과 잔다르크정신에 대한 학술 담론의 발산과 수렴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소명 의식에 기반한 자아실현 교육과 실천적 시민성 교육의 확장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RISS 학술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여 포털·SNS 담론과의 교차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다. 둘째, 잔다르크 관련 데이터에 다국어 논문이 혼재하여 한국어 담론만의

분리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프랑스어 기능어와 영화 제목어가 일부 키워드로 잔존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삼국어 불용어 사전과 제목어 정규화 절차를 더 정교화 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적 소명 의식에 대한 해석은 키워드의 존재를 선행 연구와 교차하여 추론한 것이므로, 텍스트의 맥락적 분석을 통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의 네트워크 비교는 기술통계적 비교에 머물러 있으므로, 구조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는 순열검정 또는 부트스트래핑 기반 분석이 추가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포털 빅데이터를 포함한 삼각(triangulation) 검증 연구와 더불어 두 인물의 정신을 활용한 글로벌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기환(2016), 「헤겔과 메를로 폰티에 있어 ‘지각’의 의미」, 『철학과 현상학연구』, 제71권 제1호, 29-52쪽.
- 김수진(2014), 「인성교육의 주요 접근 및 쟁점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달숙(2010), 「유관순의 저항과 재판에 관한 법적 고찰」, 『유관순 연구』, 제15호, 51-83쪽.
- 박정원(2022), 「영상매체 속 유관순과 잔 다르크 비교와 유관순 가치 재조명을 위한 콘텐츠 제안」, 『유관순 연구』, 제27권 제2호, 51-81쪽.
- 박종선·박창원(2025), 「‘유관순학’강좌를 통한 유관순 열사의 역사적 위치와 사상적 계승」, 『유관순 연구』, 제30권 제1호, 67-97쪽.
- 배정호·범은애(2018a), 「빅데이터를 활용한 홀리즘의 재개념화」,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22권 제2호, 89-106쪽.
- 배정호·범은애(2018b),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아 인성교육의 이해」,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22권 제4호, 63-81쪽.
- 배정호·범은애(2019), 「사회과학영역에서의 빅데이터 연구방법론 탐색」,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10호, 283-294쪽.
- 배정호·범은애(2021), 「학술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재할간호의 이해」, 『재할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104-117쪽.
- 심상보(2006), 「홀리스틱 인성교육」,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1-17쪽.
- 이병래(2017),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에 대한

-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2권 제5호, 475-504쪽.
- 이웅규(2025), 「성경적 관점에 본 유관순 열사의 평화정신 연구」, 『유관순 연구』, 제34호.
- 이웅규(2025), 「성경적 관점에서 본 유관순 열사의 평화정신 연구」, 『유관순 연구』, 제34호.
- 이은영(2022), 「영화 <1919 유관순>과 <항거: 유관순 이야기>를 통해 본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연구』, 제27권 제1호, 17-37쪽.
- 이은영(2022), 「영화<1919 유관순>과<항거: 유관순 이야기>를 통해 본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연구, 제27권 제1호, 17-37쪽.
- 진정년(2009), 「잔 다르크와 유관순의 비교 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14-116쪽.
- Beyer, M. A. & Laney, D.(2012), The Importance of 'Big Data': A Definition, Stamford, CT: Gartner.
- Maslow, A. H.(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Vol.50 No.4, pp.370-396, doi:10.1037/h0054346.

##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the Spirit of Yu Gwan-sun and Joan of Arc Based on Academic Big Data Analysis

Jungho Ba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academic understanding of the Spirit of Yu Gwan-sun and Joan of Arc through big data analysis. A total of 532 papers related to Yu Gwan-sun and 843 papers related to Joan of Arc were collected from RISS and analyzed using keyword frequency, word cloud, SNA, and timeline comparison. Results showed that the Spirit of Yu Gwan-sun formed a cohesive 3-community network centered on 'movement' (PageRank=0.201), while the Spirit of Joan of Arc displayed a dispersed 6-community structure with dual hubs of 'life' and 'history'. The shared keyword cross-network revealed 'movement', 'independence', 'national', and 'history' as common hubs. Timeline comparison around 2020 (centennial of both figures) showed cohesion strengthening for Yu Gwan-sun (4→2 communities) and dispersion deepening for Joan of Arc (4→6 communities). Both spirits share a common foundation as dramatic forms of self-actualization based on Christian vocation, and expanded discussion on character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needed for the reconceptualization of the spirit of resistance.

Keyword: Academic Big Data, Spirit of Yu Gwan-sun, Spirit of Joan of Arc, Character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

\*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hood Education, Baeksoek Culture University(luckyguy@bscu.ac.kr)